

한국어 신어 의미 형성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¹

정예은*

〈초 록〉

본고는 어휘의미에서 언어내적 축자적 의미뿐 아니라 언어외적 문화 맥락 의미가 중요하게 나타남에 주목하고, 문화 맥락 의미(α)의 형성 양상을 2010년대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를 통해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글이다.

이를 위해 해당 한국어 신어 의미에서 포착되는 α 의 형성 기제를 ‘환유를 통한 사태의 구체화’, ‘은유를 통한 대상의 특성화’로 분류하고, α 의 범문화적 유추 가능성에 따라서 어떤 존재론적 특성이 나타나는지 살폈다. 이때 α 의 문화보편성과 문화특수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주요 외국어(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아랍어, 러시아어)를 각자 모어로 구사하면서 한국어를 고급 이상으로 구사하는 1990~2000년 출생 연구참여자 다섯 명을 대상으로 질적 면담 실험을 시론적으로 진행하여 앞으로의 양적 검증을 위한 기초를 마련코자 하였다.

실험 결과 ‘환유를 통한 사태의 구체화’로 형성된 문화보편적 α 는 주로 의미 함수에 나타난 미완 사태의 행위 및 상태로, 문화특수적 α 는 참여자나 환경으로 출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후자는 α 의 경우의 수 중 반의관계 의미자질이 있거나 환유로 이룬 사태가 해당 문화권에서 유효적이지 않거나 어색한 경우 등에도 나타났다.

‘은유를 통한 대상의 특성화’로 형성된 문화보편적 α 는 물리적·경험적 특성으로, 문화특수적 α 는 추상적·관념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전자는 근원-목표영역 간 사상이 강력하여 α 가 환유적 요소로 나타나지 않으나, 후자는 반대로 근원-목표영역 간 사상이 상대적으로 느슨하여 α 가 환유적 요소로 나타나거나 반의관계 의미자질이 사상되는 경우 등에서도 발견되었다.

1. 서론

어떤 단어의 의미는 다분히 백과사전적이다.² 구성성분 자체로 표상될 뿐 아니라 화자의 지식 체계에서 관습적으로 선택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단어들은 구성성분의 축자적 의미(literal meaning)와 구성성분 외의 문화 맥락 의미(cultural-contextual meaning, 이하 α)를 함께 파악해야 그 의미가 온전히 이해된다.³ (1가)와 같은 규범어뿐 아니라 특히 (1나)처럼当代 사회문화적 맥락이 역동적으로 반영되는 신어에서도 관련 예시는 적지 않게 발견된다.⁴

(1) 가. 길고양이 = 길 + ~에서 주인 없이 살아가는(a) + 고양이

나. 불수능 = 불 + ~처럼 다루기 어려운(a) + 수능 <우리말샘>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 이 발표문은 정예은(2022)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2 이 글에서 언급하는 ‘단어’는 단어형성론의 대상으로서 화자의 어휘부에 등재된 어휘적 단어(lexcial word)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단어성이 높은 어휘도 포함될 수 있다.

3 ‘ α ’는 정한대로(2014)에서 ‘상황 맥락 정보’로 앞서 제시한 단위로 그 기호와 표시법(음영)을 차용하였다.

4 ‘규범어’는 ‘정착어’로 불리기도 하나 본고에서 언급하는 신어는 사용 빈도가 높아 정착어에 가깝게 쓰이는 것을 제시한바 그 경계를 좀더 명료히 하고자 ‘규범어’로 명명하였다.

(가)의 ‘길고양이’는 두 명사 어근 ‘길’과 ‘고양이’가 합한 의미 외에도 ‘~에서 주인 없이 살아가는’ 행위 정보를 더하여 의미를 형성한다. (1나)의 ‘불수능’은 두 어근 ‘불’과 ‘수능’의 축자적 의미를 잇는 경험적 특성인 ‘~처럼 다루기 어려운’을 더하여 의미를 이룬다.⁵ 이때 (1가~나)의 α 는 모두 단어의 축자적 의미가 아닌 문화 맥락 의미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문맥에서 그 의미를 유지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공인된 의미이다.⁶ (1나)의 신어 자료에 나타나는 α 는 규범어에 비해 당대 화자들의 인식을 더욱 역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의 2010년대 고빈도 사용 신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해당 신어 의미에서 발견되는 문화 맥락 의미(α)의 기원과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전통적 형태론적 관점에서는 α 는 표면에 실현되지 않은 의미로 주요 논의에서 주변화된 면이 있고, 단어형성 및 어휘의미론 논의에서는 한층 나아가 α 가 형성되는 대략적인 동기를 밝혔으나 α 가 형성되는 언어외적 기원과 문화 맥락의 관여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⁷ 이에 본고는 α 를 한국어에서 관습적 어휘의미를 형성하는 특수한 사회언어학적 단위로 조명하고 그 형성 과정 및 양상을 시론적으로나마 밝혀 보고자 한다.⁸

2. 기본적 논의

이 글에서는 어휘의미의 형성을 논의하는 만큼 그 기본 단위를 ‘형태소’가 아닌 ‘구성성분’에 둔다. 이는 아래 (3)의 ‘벽지’와 같이 공식적으로 형태적 자립성이 없어도 의미적 자립성을 갖는 최소

⁵ 본고에서 말하는 ‘축자적 의미’는 ‘구성성분에서 연상되는 언어내적 의미’를 일컫는다. 이는 아래 (가)에 밑줄 친 ‘구성성분의 사전 등재 의미’ 및 (나)에 밑줄 친 ‘(중속합성어에서 발견되는) 전형적 수식 관계’를 포함한다. 각 의미는 구성성분 혹은 합성 과정 자체에서 예측이 가능한 언어내적 의미라는 점에서 ‘구성성분만으로 연상이 어려운 언어외적 의미’, 즉 ‘문화 맥락 의미(α)’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국그릇 = 국 + ~을 담는 + 그릇, 돌주먹 = 돌 + ~처럼 단단한 + 주먹

(나) 물고기 = 물 + ~에 사는 + 고기, 길강도 = 길 + ~에서 활동하는 + 강도

⁶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뿐 아니라 다른 언어의 신어 자료에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가령 중국어 ‘佛界青年(불계청년)’의 의미는 ‘불계’와 ‘청년’이 합성된 축자적 의미에 ‘~처럼 속세에 휘둘리지 않고 사는’이라는 관념적 특성을 더하여 형성된다. 또 영어 ‘Deepfake’의 의미는 인공지능 심층학습 기술인 ‘Deep learning(딥러닝)’의 절단형에 ‘fake’가 합성된 축자적 의미에 ‘인간 이미지나 영상’이라는 대상 정보를 더하여 형성된다.

⁷ 한편 2010년대 신어의 의미를 통해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들여다보는 시도 역시 계속되고 있다(남길임 외 2015, 이진성 2017 등). 다만 해당 연구는 신어의 의미 형성에 관여하는 문화 맥락의 작동 방식보다는 신어 의미를 해석하여 한국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와 방향성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

⁸ 사회언어학에는 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언어 이론을 수립하려는 학문적 측면과, 언어적 요소를 통해 정치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용적 측면이 공존하며 두 영역은 균형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조태린 2005:251). 이러한 관점에서 어휘의미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은 사회적 조건에 근거한 언어내적 관찰과 언어의 사용 연구를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 모두를 목표로 할 수 있다. 본고는 전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나 이를 통해 발견한 한국어 어휘의 맥락적 의미는 후자의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단위의 구성성분을 통해 문화 맥락 의미(α)를 더욱 분명하고 풍부하게 포착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동안 합성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구성성분 외 의미가 α 로 통칭된 배경을 논의하고자 구성성분이 두 개 이상인 신어 자료로만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

(2) 형태소 중심: 꿀벽지(단일어) = 꿀처럼 매끈하고 찰진 허벽지

(3) 구성성분 중심: 꿀벽지($\leftarrow$ 꿀+허벽지) = 꿀 + ~처럼 매끈하고 찰진(α) + 허벽지

(2)에서 ‘꿀벽지’의 절단형인 ‘벽지’는 형태적 자립성이 없으므로 ‘꿀벽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형태에 대한 의미를 갖는 단어이다. 그러나 (3)의 ‘벽지’는 ‘허벽지’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의미적 자립성을 갖는 구성성분이며 이때 ‘꿀’과 ‘벽지’는 두 의미의 결합체로 관찰 가능하다.

두 구성성분이 결합한 단어의 의미 형성에 관한 논의는 구조주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합성성의 원리(principle of compositionality)’에서 출발한다. 합성성의 원리는 프레게에 의해 ‘어떤 언어 표현의 의미(Sinn; sense)는 ... 그 구성성분들이 결합되는 방식의 함수(Funktion; function)’로 정의된 바 있다. 이때 두 구성성분의 의미 결합은 해당 결합을 함수와 논항의 관계로 보는 것이다(양정석 2013:3). 가령 (3)에 나타난 ‘말벽지’의 의미는 구성성분 ‘말’과 ‘허벽지’는 ‘말벽지’ 전체 의미에서 ‘~처럼 굵고 튼실하다’라는 서술 정보가 요구하는 논항이라 할 수 있다.⁹

다만 그간 국내 논의에서는 두 구성성분이 결합한 의미를 ‘함수’보다는 ‘합’의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적지 않았으며 이는 각각 아래 (4가~나)로 구분될 수 있다(정한데로 2014:268). (4가)의 관점에서 α 는 의미 비합성성을 초래하는 분석 과정의 방해물로 작용하나 (4나)에서 α 의 존재는 자연스럽다. 이는 (4가)의 구조주의 의미론에서는 합성성 원리의 위배를 특수한 현상으로 분류하나, (4나)의 문맥주의 및 인지주의 의미론에서는 지극히 일반적인 합성 현상으로 인식한다는 윤평현(2020:257)에서의 지적과도 맞닿는다.¹⁰

(4) 합: $A + B = AB$ [+합성성], $A + B \neq AB$ [-합성성]

(5) 함수: $f(A,B) = A + B$ [+합성성] $f(A,B) = A + B + \alpha$ [+합성성]¹¹

⁹ 이처럼 언어의 의미가 ‘함수’라는 관점은 곧 구성성분의 의미 합성이 수학적 덧셈(addition)의 원리와는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언어 가운데에서도 특히 어휘의미는 단순한 단어나 관용구 간의 합성을 넘어 더욱 거시적이고 느슨한 결합을 포함하며, 이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비합성적 의미(non-compositional meaning)는 어휘의미론을 다른 의미론과 차별화하는 지점이기도 하다(Murphy 2010:9).

¹⁰ 정한데로(2014:264)에서는 (4)의 식에서 ‘ $\neq$ (같지 않음)’가 아닌 ‘ $\nrightarrow$ (해석되지 않음)’ 기호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이를 (5)와 대비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 $\neq$ (같지 않음)’의 기호로 제시하였다.

¹¹ 단어 형성에서 표현론적 혹은 의미론적 관점을 우선하는 입장에서는 ‘+ α ’, 형태론적 관점을 우선하는 입장에서는 ‘- α ’

이 글은 (5)와 같이 어휘의미를 함수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 $f(A,B) = A + B + \alpha$ ’에 나타나는 α 의 형성 기원과 방식을 밝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 종래 국내 연구에서는 주로 α 상당 의미를 환유(metonymy)나 은유(metaphor)의 원리로 활성화되는(activated) 요소로 보아 왔다(채현식 2006, 김진해 2014, 박재연 2021, 이찬영 2022 등). 이때 두 형성 과정은 ‘환유를 통한 사태의 구체화’, ‘은유를 통한 대상의 특성화’로 나눌 수 있다. 가령 아래 자료를 보면 (6)의 ‘역변(逆變)’에서는 각 구성성분이 이루는 미완 사태를 α 가 개념적 인접성(contiguity)에 따라 환유적으로 구체화하고, (7)의 ‘개딸’에서는 두 구성성분을 α 가 개념적 유사성(similarity)에 따라 은유적으로 사상하여 목표영역 ‘딸’을 근원영역 ‘개’의 성질로써 특성화하기 때문이다.¹²

(6) 환유를 통한 사태의 구체화: 역변 = 뛰어났던 외모가(α) + 반대로 + 변하는 것

(7) 은유를 통한 대상의 특성화: 개딸 = 개 + ~처럼 괄괄한(α) + 딸

그러나 이 글에서 더욱 근본적으로 주목하는 점은 α 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접근은 신어의 ‘의미 해석’은 설명할 수 있으나 ‘의미 형성’의 기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배경은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 하필 (6)에서는 ‘의견이’, ‘성별이’ 등이 아닌 ‘뛰어났던 외모가’가 환유적으로 형성되고, (7)에서는 근원영역 ‘개(dog)’의 다른 속성인 ‘귀여운’, ‘후각이 뛰어난’ 등 신체적 특성이 아닌 ‘괄괄한’과 같은 성격적 특성이 선택된 것일까? 사실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해당 의미들은 두 구성성분이 결합할 때 현대 한국어의 문화 맥락에서 가장 활성화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환유〉 ‘역변(逆+變)’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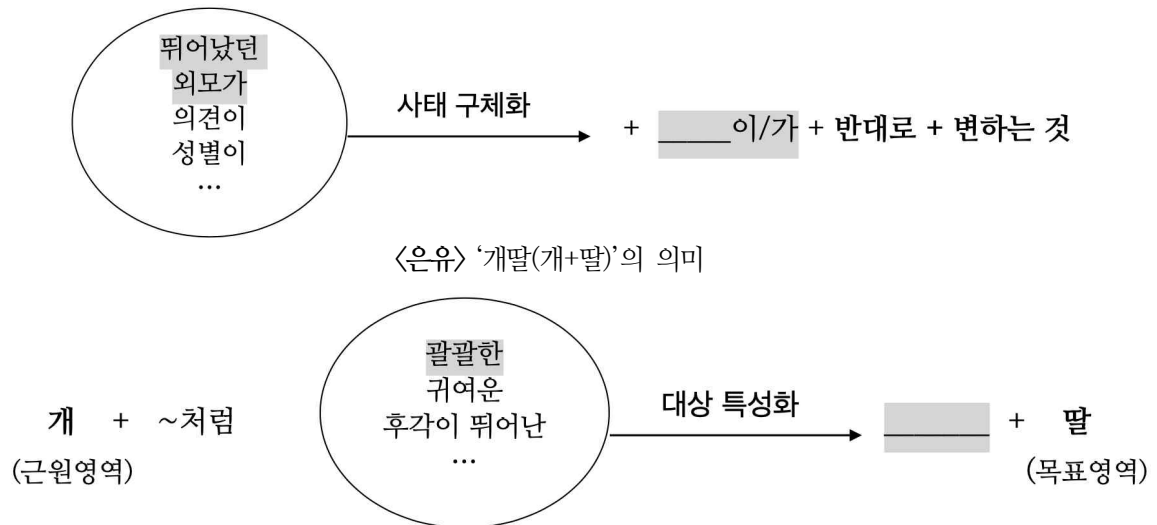
로 볼 수 있다. 전자는 α 가 단어 표현형에 나타나지 않아도 소통되고 형성되는 의미임에 주목하는 관점, 후자는 α 가 단어 표현형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주변적(marginal) 의미가 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관점일 것이다. 본고는 전자의 관점을 따른다.

¹² 이 글에서 설정한 환유/은유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아래 1~3)은 모두 은유가 두 구성성분(A/B) 간 ‘개념적 유사성’을 서술하는 인지 작용이기 때문에 성립 가능한 현상이다.

1) 함수 내 “~처럼” 결합 가능 여부(Gibbs 1999:62-63): 가능하면 은유, 불가하면 환유가 작용한다.

2) ‘A/B(목표영역)가 B/A(근원영역)다’로의 치환 가능 여부: 가능하면 은유, 불가하면 환유가 작용한다.

3) 함수 내 α 가 항상 술어로 출현하는지 여부: 항상 술어이면 은유, 일부 술어이면 환유가 작용한다.



〈그림 1〉 환유 및 은유를 통한 문화 맥락 의미 형성

그렇다면 α 의 범위는 단지 (8가~나)를 넘어 (8다~라)까지를 포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8) <의미론적 층위>

가. 단어의 전체 의미에서 구성성분 의미를 제외한 의미¹³

나. 구성성분 의미와 환유 혹은 은유를 이루는 의미

<화용론적 층위>

다. 구성성분이 결합하면서 함축되는 의미

라. 한국어 화청자의 문화 맥락에서 관습화된 의미

본고는 위 기준을 통해 어떤 의미적 특성을 보이는 α 가 한국의 문화 맥락 안에서 문화보편적 혹은 문화특수적 의미로 활성화되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α 를 결합의 잔여부나 활성 성분을 넘어 한국의 문화 맥락에서 관습적으로 선택된 지식(selected knowledge)으로 조명할 뿐 아니라 어휘의미를 형성하는 ‘맥락’의 관여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3. 연구 방법

이 글의 연구 대상은 국립국어원의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어 자료집(이하 <신어>) 내에서 (8가~라)의 기준을 충족하는 α 가 나타난 고빈도 사용 단어 가운데 아래 (9)의 총 32개이다. 실험 결과에서 각 연도의 문화 맥락을 균형적으로 반영

¹³ 이때 단어의 전체 의미 및 구성성분 의미는 모두 <표준>, <연세>, <고려>를 비롯한 <우리말샘>, <옥스포드 영한사전>의 뜻풀이로 등재된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

하기 위해 연도별로 최대 3~4개만 추출되도록 하였다.¹⁴ 최종 연구 데이터는 Zoom에서 진행한 1:1 온라인 화상 면담 실험 전사본을 바탕으로 하였다.¹⁵

(9) 꿀팁(32,500,000), 심쿵(14,400,000), 너피설(2,850,000), 흡수저(2,810,000), 인생샷(2,310,000), 빗투(823,000), 헬린이(696,000), 사기캐(683,000), 개딸(644,000), 과즙미(632,000), 맴찜(601,000), 남친짤(594,000), 빗삭(371,000), 위꿀(287,000), 맴찜이(233,000), 역변(188,000), 못된손(178,000), 닥눈삼(160,000), 카툰튀(139,000), 발퀴(136,000), 엄빠주의(117,000), 말벽지(94,400), 나레기(62,700), 자극짤(60,400), 완간(45,000), 두부멘탈(43,100), 반간머리(31,400), 거터파크(28,800), 착용템(24,500), 뽕병(15,200), 갓튜버(910), 그림자통역(113)

위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면담 실험은 1~2단계, 자료 분석은 3단계에서 진행되었다.¹⁶

(10) 1단계: 단어와 α 를 제외한 의미 함수를 제시하여 α 를 자유롭게 추론하도록 한다.¹⁷

2단계: 단어와 α 를 포함한 의미 함수를 제시하여 α 를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외국어 화자가 유추할 가능성을 0(없음)~5(아주 높음)로 평가하도록 한다.¹⁸

3단계: 1~2단계의 결과를 연구자가 귀납적으로 도식화하여 다양한 문화 맥락이 α 형성에 관여하는 양상을 집계된 문화보편성과 문화특수성에 따라 기술한다.

연구참여자는 2단계의 객관적 측정을 위해 한국어를 일상 및 학술적 상황에서 고급 혹은 제2모어 수준으로 구사하면서도 2010~2019년 신어 사용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비교적 용이하게 이해할 만한 1990~2000 출생의 주요 외국어 모어 화자 다섯 명을 선정하였다.¹⁹ 해당 기준에 따라 선발된 <표 1>의 연구참여자를 바탕으로 질적 면담 실험이 이루어졌다.

¹⁴ 이때 빈도는 실시간 구글 키워드 검색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는 큰따옴표 명령어 “[신어]”를 검색해 중복문서를 제외한 검색결과 개수를 온라인 사용 빈도 척도로 삼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기사 및 보도자료에서 추출된 <신어> 가운데 실질적으로 한국어 화자 사이에서 사용되는 신어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빈도는 각 단어 옆 괄호 안에 절대수로 표시하였으며, 해당 수치는 2022년 3월 21일 기준이다.

¹⁵ 해당 전사본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전사본 전문은 정예은(2022) 4~5장 참고.

¹⁶ 1단계에서 연구참여자가 추론한 α 에 대해 2단계에서 맞고 틀림을 판가름하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전체 신어 자료에 대해 1단계를 전체 진행하고 2단계를 진행하였다.

¹⁷ ‘환유를

통한 사태의 구체화’에서는 ‘구성성분 + ____ (격조사) + 구성성분’으로 제시하여 격조사를 통해 α 의 의미역을 추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령 ‘완전히 + ____을/를 + 간 것’에서는 α 가 대상역(theme)임을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다. ‘은유를 통한 대상의 특성화’에서는 ‘구성성분 + ~처럼 ____ + 구성성분’을 제시하여 ‘~처럼’으로 α 가 두 구성성분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의미임을 시사하였다. 가령 연구참여자는 ‘두부 + ~처럼 ____ + 멘탈’을 보면 α 가 ‘두부’와 ‘멘탈’의 공통적 특성을 나타낼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¹⁸ 해당 수치는 분석 과정에서 백분율로 치환하였으나 질적 연구인 만큼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였다.

¹⁹ ‘1년 이상 거주 국가’ 열의 제시 순서는 실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나열하였다. 다만 E99는 미국, 캐나다, 홍콩 거주 기간이 유사하여 ‘/’로 이어 제시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정보²⁰

번호	모어	국적	출생년도	한국어 구사 수준	1년 이상 거주 국가
E99	영어	대한민국	1999	모어	대한민국, 미국/캐나다/홍콩
C95	중국어(관화)	중국	1995	고급	중국, 대한민국
F00	프랑스어	대한민국	2000	모어	대한민국, 프랑스, 일본
A92	아랍어	이집트	1992	고급	이집트, 대한민국
R91	러시아어	러시아	1991	고급	러시아, 대한민국

4. 환유를 통한 사태의 구체화

환유(metonymy)는 개념적 인접성에 따라 하나의 개체나 사물에서 다른 개체에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인지 현상(Kövecses 2002:174)이다. 본 연구에서 환유는 ‘전체 의미 함수의 사태를 α 가 구체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환유의 ‘문화보편성(cultural universality)’은 전체 사태를 구체화하는 α 의 원소가 소수로 수렴함을 의미할 수 있다. 반대로 환유의 ‘문화특수성(cultural specificity)’은 전체 사태를 구체화하는 α 의 원소가 다수로 발산하는 문화적 다원성(cultural diversity)을 보일 것이나 아주 극소수의 예에서는 오직 하나의 문화권에만 나타나는 문화적 유일성(cultural uniqueness)을 보일 수 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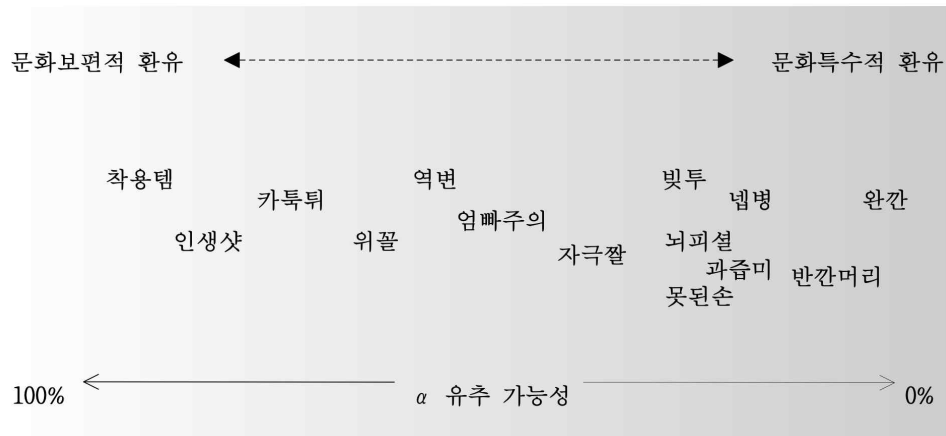
이에 따라 ‘환유를 통한 사태의 구체화’ 자료에 해당하는 신어 내 α 를 실험 결과에 따라 문화보편적 환유와 문화특수적 환유의 정도에 따라 나누어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²⁰ E99, F00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참여자로 각각 영어와 한국어,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모두 모어로 구사하는 이중언어자이다. 각 참여자의 동의하에 수집한 초기교육 배경은 다음과 같다.

E99는 2007년(당시 8세)부터 2009년(당시 10세)까지 가정에서 영어만 사용하였고 2001년(당시 12세)부터 2013년(당시 14세)까지 캐나다 및 미국에, 2016년(당시 17세)부터 2018년(당시 19세)까지 캐나다 국제 외국인 학교에서 중등교육을 받고 2019년(당시 20세)부터 2022년(당시 23세)까지 홍콩과 미국 보스턴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 다만 E99의 장기 거주국 중 하나인 홍콩은 영어를 공용어로 쓰기는 하지만 다국적 기업의 비즈니스 상황을 제외한 현지 생활에서는 거의 광둥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대상 지역으로 삼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1) F00은 2011년(당시 11세)부터 2016년(당시 16세)까지 프랑스 현지 학교에서 중등교육을 받았다.

²¹ 다만 세계의 모든 언어를 연구할 수 없다면 ‘문화적 유일성’을 밝히기는 어렵다. 본고도 6개 언어(한국어, 영어, 아랍어,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만을 논의하는 만큼 ‘문화적 다원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그림 2> 문화보편적 및 문화특수적 환유로 α가 형성된 2010년대 신어

이번 면담 실험에서 질적으로 발견한 점은 α의 존재론적 특성이 행위 및 상태(activity or state, α1)로 나타나면 문화보편성이 높아질 수 있고, 참여자(participant, α2)나 환경(circumstance, α3)으로 나타나면 문화특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²² 물론 앞으로 더욱 엄밀한 양적 검증이 필요한 질적 관찰에 의한 잠정적 결론이지만, 이러한 현상을 이론적 수준에서는 설명해 볼 수 있을 듯하다. 먼저 <그림 2>에 제시한 각 신어의 의미 함수 가운데 일부를 보자.²³

(11) 환유를 통한 사태의 구체화

가. 행위 및 상태: 인생샷(2015), 너피셜(2017), 빛투(2019)²⁴

$f(\text{인생, 샷}) = \text{인생} + \sim\text{에 길이 남을}(\alpha_1) + \text{사진}$

$f(\text{너, 피셜}) = \text{너} + \sim\text{에서 나온}(\alpha_1) + \text{공식 정보}$

$f(\text{빛, 투}) = \text{빛} + \sim\text{을 빌려서}(\alpha_1) + \text{투자하는 것}$

나. 참여자: 못된손(2012), 카툰튀(2015), 반간머리(2019)

$f(\text{못된, 손}) = \text{여성의 신체에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남성의}(\alpha_2) + \text{못된} + \text{손}$

$f(\text{카, 툽, 튀}) = \text{카메라가} + \text{툽} + \text{튀어나온} + \text{카메라}(\alpha_2)$

$f(\text{반, 간, 머리}) = \text{남자가}(\alpha_2) + \text{앞머리를} + \text{반} + \text{깐 것}$

다. 환경: 엄빠주의(2010), 자극짤(2012), 넵병(2018)

$f(\text{엄, 빠, 주의}) = \text{인터넷에서 선정적 정보를 볼 때}(\alpha_3) + \text{부모님} + \sim\text{을}$
주의하는 것

$f(\text{자극, 짤}) = \text{공부나 다이어트에}(\alpha_3) + \text{자극} + \sim\text{이 되는 짤}$

$f(\text{넵, 병}) = \text{직장 메신저에서}(\alpha_3) + \text{넵} + \sim\text{을 계속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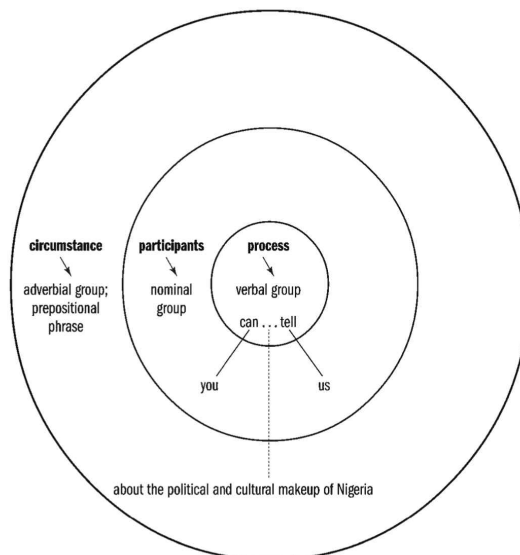
²² 문화보편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 ‘착용템’의 ‘연예인이나 게임 캐릭터가(α)’는 ‘카툰튀’의 ‘핸드폰(α)’처럼 참여자 성분으로 사태를 구체화하여 유추 가능성이 낮은 편이지만, 구성성분 ‘아이템(item)’이 여러 문화권에서 ‘게임 및 방송’이라는 문화보편적 사용역을 가져 유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였다.

²³ 정예은(2022)에서는 ‘참여자(participant)’와 ‘객체(object)’를 실현 위치 및 유정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본 발표문에서는 ‘참여자’와 ‘참여자 논항(argument)’간 용어상 혼동을 최소화하고 제안 체계를 간소화하고자 ‘참여자’와 ‘객체’로 제시된 범주를 모두 ‘참여자’로 통합하여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²⁴ 신어 뒤의 표기한 연도는 <신어> 자료집의 발행년도이다.

위 의미 함수를 사태로 표상하는 단위로 본다면, ‘행위 및 상태’, ‘참여자’, ‘환경’이 포함할 수 있는 개념적 원소는 그 범위가 다르다. Halliday & Matthiessen(2014:221-222)에서는 타동성(transitivity) 체계의 구성 요소를 동사 그룹으로 표상되는 과정(process), 명사 그룹으로 표상되는 참여자(participants), 부사 및 전치사 그룹으로 표상되는 상황(circumstance)으로 나누어 화자의 경험 도식을 <그림 3>과 같이 가장 중심적인 단위부터 부차적인 단위로 위계화하였다.

<그림 3>은 α 의 세 단위를 나누는 ‘중심성’의 측면에서 본고의 발견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준다. 이는 앞서 문화보편적 α 의 원소가 소수에 수렴하지만 문화특수적 α 는 다수로 발산하여 나타난다는 가정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가령 ‘학교에서(α_3) 수첩을(α_2) 샀다(α_1)’라는 사태에서 행위 및 상태 집합 $\alpha_1 = \{\text{샀다, 팔았다, 펼쳤다}\dots\}$ 의 원소는 α_1 로부터 파생되는 참여자 집합 $\alpha_2 = \{\text{카페 사장이, 책을, 선생님이, 집을, 학생이, 마스크를, }\dots\}$ 의 원소 수보다는 필연적으로 적다. 또 α_2 에서 파생되는 환경 집합 $\alpha_3 = \{\text{급히, 집에서, 회사에서, 논문을 쓰려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dots\}$ 은 그 가능 원소 수가 α_2 의 그보다도 많게 된다. 즉, $n(\alpha_1) < n(\alpha_2) < n(\alpha_3)$ 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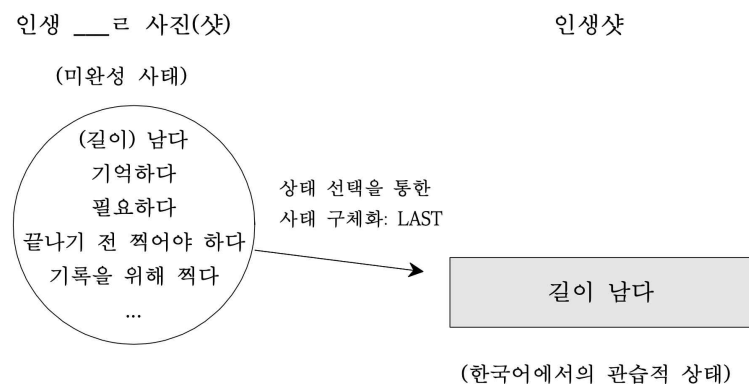
<그림 3> 절의 경험적 구조 내 중심부 및 주변부적 요소(Halliday & Matthiessen 2014:222)²⁵

²⁵ Halliday & Matthiessen(2014)의 절(clause)은 문법적 절보다 좀더 거시적인 인지적 체계이다. 가령 ‘인생에 길이 남은 사진’은 구 구성이지만 인지적으로는 ‘사진이 인생에 길이 남는다’라는 절로 확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환유로 형성된 α 의 문화보편성 및 문화특수성에 ‘행위 및 상태’, ‘참여자’, ‘환경’이라는 세 가지 존재론적 특성만이 관여했다고는 주장하기 어렵다. 본고에서 사용된 ‘행위 및 상태(3개)’보다 ‘참여자(8개)’와 ‘환경(3개)’에 해당하는 단어가 더 많이 나타났기에 동일한 비교를 할 수 없었을뿐더러 α 의 문화특수성에는 다른 변인이 충분히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양적 비교보다는 질적·실증적 비교에 주목한 결과 문화보편성을 높이는 요인에는 구성성분이 특정 사용역을 가지는 경우, 문화특수성을 높이는 요인에는 α 의 원소 중 반의관계 의미자질이 나타나거나 환유로 이론 사태의 상징 자체가 특정 문화권에서 유효적이지 않거나 어색한 경우가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이 글에서는 언급된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여 환유로 형성된 α 가운데 문화보편성이 높은 예시 2개와 문화특수성이 높은 예시 2개를 대표적으로 살펴기로 한다.

4.1. 문화보편적 환유로 형성된 α

먼저 α 가 ‘행위 및 상태’로서 주요 외국어 화자의 평균적 α 유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인생샷(2015)’의 예시를 보자.²⁶



<그림 4> 환유를 통한 ‘인생샷’의 문화 맥락 의미(a)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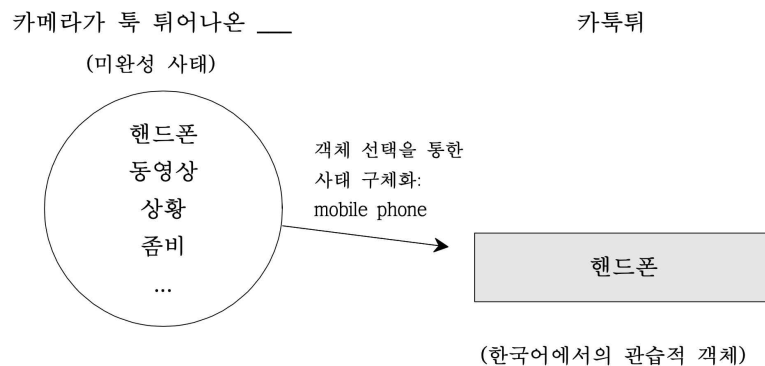
‘인생샷’의 의미 함수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길이 남을(α)’은 문화보편적으로 연상되는 의미로 보았다. ‘인생 ____ 사진’만 제시했을 때에 빈칸에 들어갈 상태 술어로는 ‘(길이) 남다(2명)’, ‘기억하다(2명)’, ‘필요하다(1명)’ 등으로 특정 의미자질을 공유하지는 않으나 모두 사진을 보관하면서 얻는 긍정적 필요성을 활성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²⁶ <그림 4>의 좌측 원소는 연구참여자가 1~2단계에서 ‘인생 ____ 사진(샷)’의 빈칸 의미를 추론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이며, 2단계에서 우측에 선택된 ‘길이 남다’라는 의미를 주요 외국어 화자가 유추할 가능성은 <그림 2>에 수치로 제시하였다(4~5장에 모두 동일한 기준 적용).

이에 ‘같이 남다’를 주요 외국어 화자가 예측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C95>, <F00>, <A92>)는 의견이 보통(<E99>, <R91>)이라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전자는 해당 언어문화권의 ‘인생 ___르 사진’이란 사태에서 주로 ‘오래 남다(가다)’ 상태 술어를 요구하는 경우, 후자는 해당 사태에서 ‘끝나기 전에 하다’, ‘기록하다’ 행위 술어를 요구하는 경우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인생의 α_1 사진’에서 행위 및 상태 집합인 $\alpha_1 = \{\text{남다, 기억하다, 필요하다, 끝나기 전 찍어야 하다, 기록을 위해 찍다}\dots\}$ 의 원소 간 의미가 특정 유의관계는 보이지 않지만 대체로 ‘인생에서 사진을 보관하며 이득을 얻는다’는 문화보편적 해석을 이끌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α 가 ‘참여자’로 나타났지만 주요 외국어 화자의 평균적 α 유추 가능성이 문화보편성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난 ‘카툰(2015)’을 보자.



<그림 5> 환유를 통한 ‘카툰’의 문화 맥락 의미(α) 형성

‘카툰’의 의미 함수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핸드폰(α)’이 비교적 문화보편적으로 연상될 수 있는 의미이지만, ‘카메라’의 사용역과 ‘핸드폰 카메라가 툇 튀어나오다’ 사태 자체의 문화적 유효성에 따라 유추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카메라가 툇 튀어나온 ___’에서 빈칸에 들어갈 사태 참여자(대상)로는 ‘핸드폰(2명)’, ‘동영상(1명)’, ‘상황(1명)’, ‘좀비(1명)’ 등으로 가능한 원소가 특정 의미자질이나 함의를 공유하지 않고 다소 불규칙적으로 발산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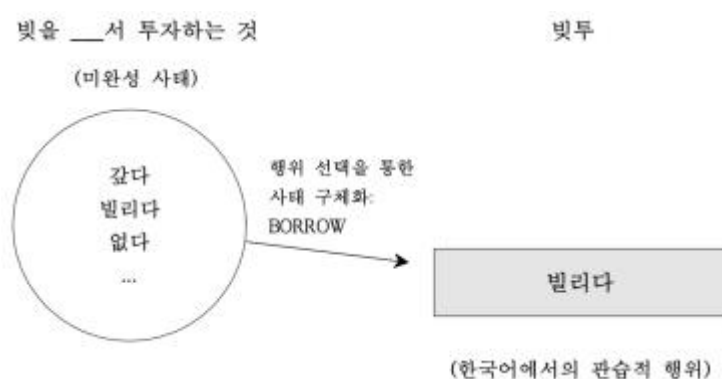
그럼에도 ‘핸드폰’을 주요 외국어 모어 화자가 예측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F00>, <A92>, <R91>)는 의견이 낮다(<C95>, <E99>)는 의견보다 좀더 많았다. 전자는 해당 언어문화권에서 ‘카메라’ 자체를 ‘핸드폰 카메라’의 동의어처럼 인식하여 특정 구성성분의 사용역이 주로 ‘모바일 환경’으로 제한되는 경우, 후자는 ‘카메라’와 ‘핸드폰 카메라’를 지칭하는 단어가 다르거나(<C95>), ‘핸드폰 카메라가 툇 튀어나오다’라는 사태 자체가 문화적으로 전혀 유효적이지 않아서 ‘핸드폰’이 참여자로

연상되지 않는 경우(<E99>)에 해당하였다.

요컨대 ‘카메라가 툭 튀어나온 α_2 ’에서 사태를 구체화하는 참여자 집합 $\alpha_2 = \{\text{핸드폰, 동영상, 상황, 좀비}\dots\}$ 에서는 원소 간의 의미가 특정 유의관계나 문화보편적 해석을 이끌지는 못했으나, 특정 구성성분의 사용역이 문화보편적으로 제한된다면 α 의 유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었다.

4.2. 문화특수적 환유로 형성된 α

다음으로 α 가 ‘행위 및 상태’로 나타났음에도 주요 외국어 화자의 평균적 α 유추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 문화특수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난 ‘빚투(2019)’의 예시이다.



<그림 6> 환유를 통한 ‘빚투’의 문화 맥락 의미(α)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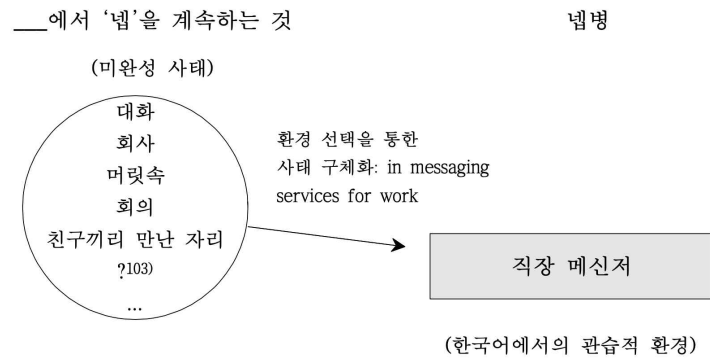
‘빚투’의 의미 함수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빌려서(α)’는 한국어에서 문화특수적으로 연상되는 의미로 판단하였다. ‘빚을 ___서 투자하는 것’만 제시했을 때에 빈칸에 들어갈 행위 및 상태로는 ‘값다(2명)’, ‘빌리다(2명)’, ‘~이 없다(1명)’ 등으로 특정 의미자질이나 함의를 특별히 공유하지 않고 경우의 수가 발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때 ‘빌리다’를 주요 외국어 모어 화자가 예측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E99; 캐나다 한정>, <C95>, <A92>, <R91>)는 의견이 높다(<E99; 미국 한정>, <F00>)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전자는 해당 언어문화권에서 ‘빚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이라는 사태 성립 자체가 어색하며, 대체로 구성성분 ‘빚’의 부정적(negative) 어감 때문에 보다 중립적인 ‘대출’이 오거나 α 가 ‘빌리다’가 아닌 반의적 특성을 가진 ‘값다’라면 유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하였다. 반면 후자는 현대 연중의 자본주의적(capitalistic) 인식에의 편중에 따라 충분히 문화적으로 연상된다고 답한 경우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빚을 α_1 투자하는 것’에서 행위 및 상태 집합 $\alpha_1 = \{\text{값다, 빌리다, 없다}\dots\}$ 에서

반의관계처럼 보이는 원소가 나타나고, ‘빛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이라는 사태 자체가 문화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것 역시 α 의 유추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인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α 가 사태의 부차적 요소인 ‘환경’으로서 주요 외국어 화자의 평균적 α 유추 가능성이 낮다고 나타난 ‘넵병(2018)’의 예시이다.



<그림 7> 환유를 통한 ‘넵병’의 문화 맥락 의미(α) 형성

‘넵병’의 의미 함수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직장 메신저에서(α)’는 한국어에서 매우 문화특수적으로 연상되는 의미로 판단하였다. ‘___에서 ‘넵’을 계속하는 것’만 제시했을 때 빈칸에 들어갈 환경 정보로는 ‘대화(1명)’, ‘회사(1명)’, ‘머릿속(1명)’, ‘회의(1명)’, ‘친구끼리 만난 자리(1명)’ 등으로 경우의 수가 어떤 의미자질을 공유하지 않고 발산하면서도 대체로 ‘메신저’와 같은 문어 상황이 아닌 ‘대화/회의’, ‘머릿속’ 등 구어 상황이나 심리적 상황에 국한되었다.

이에 ‘직장 메신저에서’를 주요 외국어 모어 화자가 예측할 가능성에 대해서 높다는 의견은 없었으며, 보통이라는(<E99>; 미국 한정, <C95>, <F00>, <A92>) 의견과 낮다는(<E99>; 캐나다 한정, <R91>) 답변이 공존하였다. 이에 대한 심층 면담 결과 참여자들은 대체로 해당 언어문화권에서 ‘직장 메신저에서 ‘넵’을 계속하는 것’이라는 사태 성립이 부분적으로 어색하다고 답하였다. 가령 ‘넵’과 같이 예의바른 ‘네’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는 장소가 ‘직장’임은 유추 가능하지만 ‘메신저’까지는 잘 사용하지 않아 유추하기 어렵다고 본 경우(<E99>; 미국 한정, <C95>), ‘네’를 계속하는 것이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성격의 문제로 본 경우(<F00>, <A92>), ‘네’를 계속하는 사태의 필요성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R91>)에 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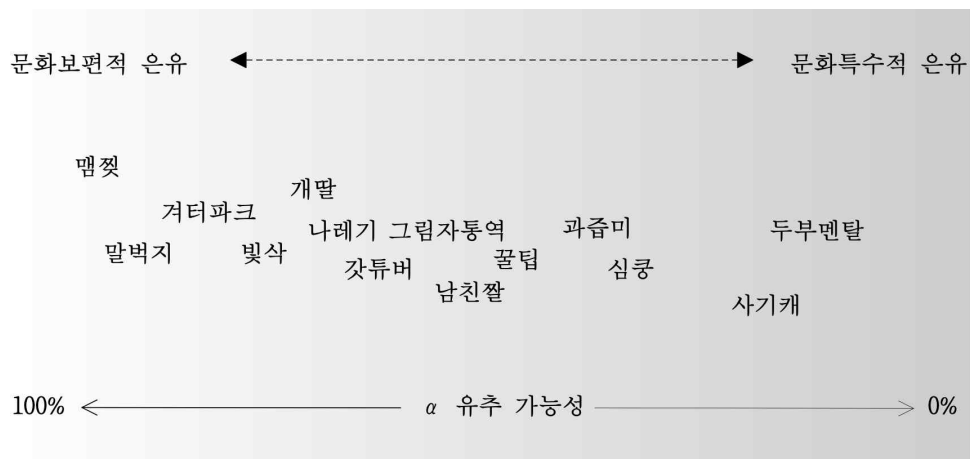
이를 통해 ‘ α_3 ‘넵’을 계속하는 것’에서 환경 집합 $\alpha_3 = \{\text{대화에서, 회사에서, 머릿속에서, 회의에}$

서, 친구끼리 만난 자리에서…}은 원소 간의 의미가 예측불허하게 발산하고, ‘직장 메신저에서 ‘넵’을 계속하는 것’이라는 사태 자체의 문화적 부적합성과 특수함이 또다시 α 의 유추 가능성을 낮추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5. 은유를 통한 대상의 특성화

은유(metaphor)는 개념적 유사성에 따라 추상적 목표영역을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 근원영역이 연결되는 인지 현상(Kövecses 2002:174)이다. 본 연구에서 은유는 ‘근원영역의 특성인 α 로 목표영역을 특성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앞선 환유와 같이 은유의 문화보편성 역시 전체 사태를 구체화하는 α 의 원소가 소수로 수렴함을 의미할 수 있다. 반대로 은유의 문화특수성은 전체 사태를 구체화하는 α 의 원소가 다수로 발산하는 문화적 다원성(cultural diversity)을 보일 것이다.

이에 따라 ‘은유를 통한 대상의 특성화’ 자료에 해당하는 신어 내 α 를 실험 결과에 따라 문화보편적 은유와 문화특수적 은유의 정도에 따라 나누어 제시하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문화보편적 및 문화특수적 은유로 α 가 형성된 2010년대 신어

이번 질적 실험에서 발견한 점은 α 의 존재론적 특성이 물리적 특성(physical attributes, α_1)이나 경험적 특성(empirical attributes, α_2)’으로 나타나면 문화보편성이 높아질 수 있고 반면 추상적 특성(abstract attributes, α_3)나 관념적 특성(ideological attributes, α_4)으로 나타나면 문화특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정의한 네 가지 특성의 개념적 차이는 아래와 같다.

<표 2> ‘물리적 특성’, ‘경험적 특성’, ‘추상적 특성’, ‘관념적 특성’의 의미자질

	근원영역의 물리적 관찰 가능성	α에 대한 감각 및 측정 가능성
물리적 특성	+	+
경험적 특성	-	+
추상적 특성	+	-
관념적 특성	-	-

이러한 경향은 신체화된 은유(embodied metaphor)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이고 경험적인 α일수록 이를 감각하고 측정하는 신체 기관은 '선재하는 객관적 유사성'을 추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Heine 1995, Kövecses 2005 등) 근원-목표영역 간에 사상되는 경우의 수를 보다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수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신체화된 영역을 벗어난 관념적, 추상적인 α일수록 화자의 후천적이고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활성화되어 근원-목표영역 간 사상되는 원소가 문화 맥락에 더욱 쉽게 노출되어 다층적으로 발산할 수 있다. 아래는 <표 2>의 기준에 따라 <그림 8>에 나타난 각 신어의 의미 함수 가운데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11) 은유를 통한 대상의 특성화

가. 물리적 특성: 거터파크(2010), 말벽지(2010), 두부멘탈(2013)

f(거,터파크) = 워터파크 + ~처럼 축축한(α1) + 거드랑이

f(말,벽지) = 말 + ~처럼 튼튼한(α1) + 허벅지

f(두부,멘탈) = 두부 + ~처럼 물렁하고 나약한(α1) + 멘탈

나. 경험적 특성: 빗삭(2014), 심쿵(2014), 맴찢(2016)

f(빗,삭) = 빗 + ~처럼 빠르게(α2) + 삭제하는 것

f(심,쿵) = 심장 + ~이 쿵 하는 것 + ~처럼 설레는 감정(α2)

f(맴,찢) = 마음 + ~이 찢어지는 것 + ~처럼 슬프고 애잔한 감정(α2)

다. 추상적 특성: 꿀팁(2013), 나레기(2015), 그림자통역(2016)

f(꿀,팁) = 꿀 + ~처럼 유용한(α3) + 팁

f(나,레기) = 쓰레기 + ~처럼 쓸모없는(α3) + 나

f(그림자,통역) = 그림자 + ~처럼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는(α3) + 통역사

라. 관념적 특성: 사기캐(2012), 남친짤(2013), 갓튜버(2018)

f(사기,캐) = 사기 + ~처럼 모든 것을 잘하는(α4) + 캐릭터

f(남친,짤) = 남친 + ~처럼 다정하고 훈훈한(α4) + (사람의) 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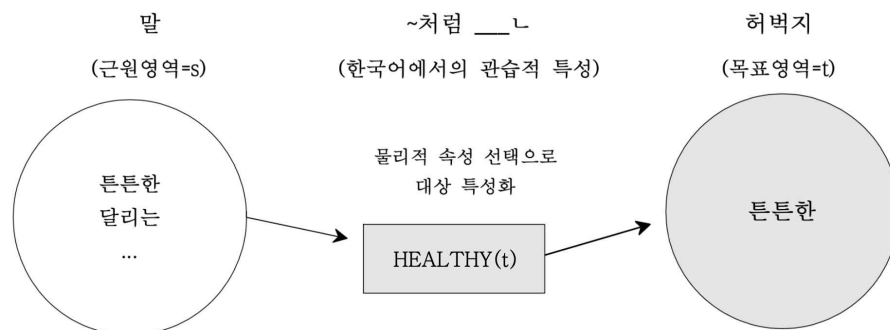
f(갓,튜버) = 신 + ~처럼 대중에게 영향력을 주는(α4) + 유튜브

²⁷ '짤' 내부의 특정 개체가 '남친(남자친구)' 같음은 이미 해당 개체가 [+HUMAN]임을 함의하기에 '(사람의)'는 α로 추출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살핀 환유와 마찬가지로 이번 연구를 통해 단순히 은유로 형성된 α 의 (12)에 나타난 네 가지 존재론적 특성이 그 문화보편성 및 문화특수성을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각 특성은 사전에 양적으로 균일하게 통제된 것이 아니며 α 의 유추 가능성에 다른 변인이 충분히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추가 면담 실험을 진행한 결과 문화보편적 은유로 형성된 α 는 근원영역에서 연상되는 일차적 영상도식이 문화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경우, 근원-목표영역의 사상이 비교적 강력하여 α 환유적 요소로 나타날 확률이 적을 때에도 나타났다. 또 문화특수적 은유로 형성된 α 는 가능 원소 가운데 반의관계 의미자질이 나타나거나 근원-목표영역의 사상이 느슨하여 α 가 환유적 요소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전술된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여 은유로 형성된 α 가운데 문화보편성이 높은 예시 2개와 문화특수성이 높은 예시 2개를 살펴보기로 한다.

5.1. 문화보편적 은유로 형성된 α

먼저 α 가 ‘물리적 특성’으로 나타나 주요 외국어 화자의 평균적 α 유추 가능성이 높은 ‘말벽지 (2010)’의 예시를 보자.



<그림 9> 은유를 통한 ‘말벽지’의 문화 맥락 의미(α)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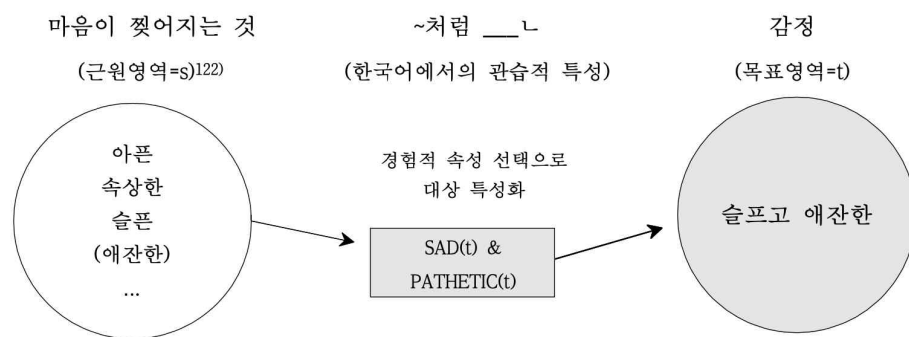
‘말벽지’의 의미 함수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튼튼한(α)’은 문화보편적으로 연상될 수 있는 의미라고 판단하였다. ‘말처럼 ___ 허벅지’만 제시했을 때에 빈칸에 들어갈 특성으로는 ‘튼튼한(4명)’, ‘달리는(1명)’ 등 모두 [+HEALTHY]의 의미자질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²⁸ 이에 ‘말처럼 ___ 허벅지’에서 ‘튼튼하다’를 주요 외국어 모어 화자가 예측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C95>, <F00>, <A92>, <E99; 미국 한정>, <R91>)는 의견이 낮다(<E99; 캐나다 한정>)는 의견보다 현저히 많았다.

²⁸ ‘은유를 통한 대상의 특성화’의 도식에 나타나는 특성은 Kearns(2011)의 논의를 참고하여 형식의미론(formal semantics) 기반 의미식으로 제시하였다.

전자는 해당 언어문화권에서 말(馬) 허벅지의 주요한 물리적 특성을 당위적으로 ‘튼튼함’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아니면, 근원영역 ‘말’로써 ‘튼튼함’을 의미하는 언어 표현이 이미 있는 경우(<F00>)였다. 반면 후자는 해당 문화권에서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적어 말 허벅지의 물리적 특성과 사람의 물리적 특성을 사상하는 것이 직관적으로는 다소 어색하다고 답한 경우였다.

정리하면 ‘말처럼 α_1 허벅지’에서는 물리적 특성의 집합 $\alpha_1 = \{\text{튼튼하다, 달리다}\dots\}$ 로 대부분의 원소는 동물의 신체 부위로 인간의 신체 부위를 표현하는 것이 어색한 언어문화권을 제외하면 모두 [+HEALTHY]로 수렴하여 보편적 해석을 이끌었다.

다음으로 α 가 ‘경험적 특성’으로 나타나 주요 외국어 화자의 평균적 α 유추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난 ‘멤찐(2016)’의 예시이다.



<그림 10> 은유를 통한 ‘멤찐’의 문화 맥락 의미(α) 형성

‘멤찐’의 의미 함수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슬프고 애잔한(α)’이 연상되는 것은 문화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____ 감정’만 제시했을 때 빈칸에 들어갈 특성으로는 ‘아픈(3명)’, ‘속상한(1명)’, ‘슬픈(1명)’ 등 대체로 [+SAD]를 공유하는 부정적 감정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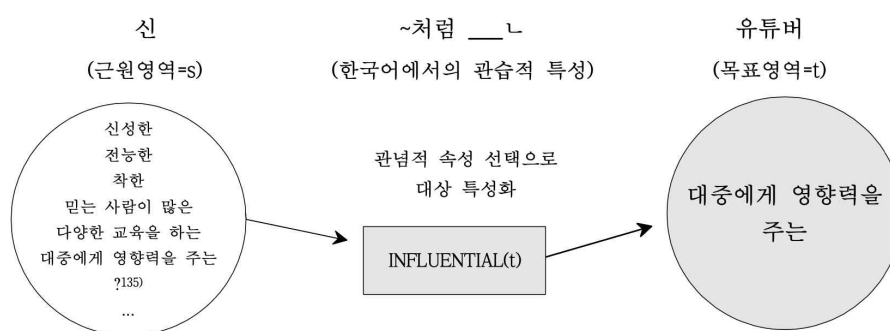
이에 ‘슬프고 애잔한’을 주요 외국어 모어 화자가 예측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모두 해당 언어문화권에서 근원영역이 ‘마음이 찢어지는 것’, 목표영역이 ‘슬픈 감정’으로 사상되는 언어 표현이 있거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깨지는 것, 부서지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은유를 사용하는 경우였다. 다만 ‘마음이 찢어지는 것’은 실제로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은 아니어서 ‘처럼(is like)’ 없이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을/에...} ____ 감정’이라고 환

유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실체가 관찰 불가함에도 목표영역 감정이 유사하게 나타남은 이것이 문화보편적으로 경험적 유추가 가능한 사태임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α_2 감정’에서 경험적 특성 집합인 $\alpha_2 = \{\text{아픈, 속상한, 슬픈}\dots\}$ 의 원소 간 의미가 유의관계로 수렴하고 α_2 가 환유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α 의 은유적 유추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5.2. 문화특수적 은유로 형성된 α

다음으로 α 가 ‘관념적 특성’으로 나타나 주요 외국어 화자의 평균적 α 유추 가능성이 보통 정도로 나타난 ‘갯튜브(2018)’의 예시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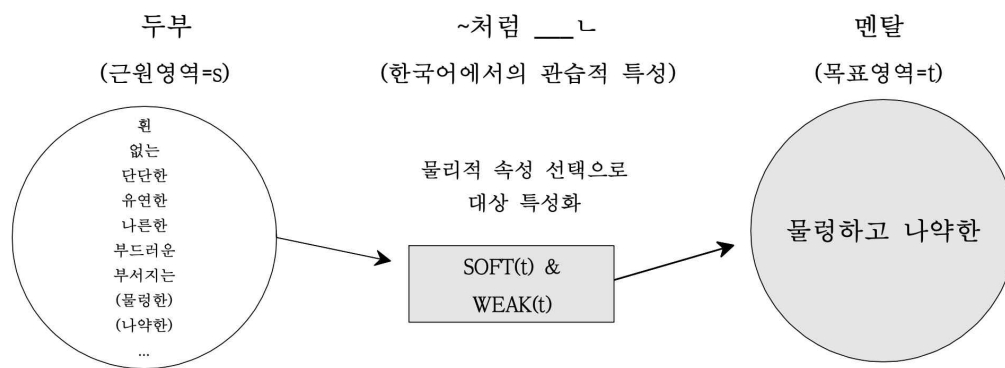
<그림 11> 은유를 통한 ‘갯튜브’의 문화 맥락 의미(α) 형성

‘갯튜브’의 의미 함수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대중에게 영향력을 주는(α)’은 대체로 한국어에서 문화 특수적으로 연상되는 의미로 판단하였다. ‘신처럼 ___갯튜브’만 제시했을 때에 빈칸에 들어갈 행위 및 상태로는 ‘신성한(1명)’, ‘착한(1명)’, ‘믿는 사람이 많은(1명)’, ‘다양한 교육을 하는(1명)’,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는(대중에게 영향력을 주는)(1명)’ 등으로 원소가 발산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대부분 근원영역 ‘신(神)’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사상했다는 점은 유사하였다.

이때 ‘대중에게 영향력을 주다’를 주요 외국어 모어 화자가 예측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통이거나 낮다는 의견(<C95>, <A92>, <F00>)이 높다는(<E99>, <R91>) 답변보다 많았다. 전자는 해당 언어문화권에서 ‘신’이 비유되는 전능함의 속성이 목표영역 ‘갯튜브’에 사상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 경우(<C95>, <A92>), 나아가 ‘신’과 ‘갯튜브’의 유사성이 없어 ‘신 관련 콘텐츠를 찍는 갯튜브’로 환유적으로 해석한 경우(<F00>)였다. 후자는 본인의 언어문화권에서도 ‘신’과 ‘갯튜브’를 사상하는 의미가 ‘모든 것이 가능한’, ‘영향력이 강한’일 것이라고 답한 경우이다.

이를 통해 ‘신처럼 α4 유튜버’에서 관념적 특성의 집합인 $\alpha_4 = \{\text{신성하다, 착하다, 믿는 사람이 많다, 다양한 교육을 한다,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다}\dots\}$ 에서는 근원영역 ‘신’에 대한 긍정 평가 이외에는 대체로 원소 의미를 언어권의 종교적, 문화적 차이에 따라 상이하게 유추하였고 ‘신’과 ‘유튜버’를 환유적으로 연결하는 경향성 역시 α 의 유추 가능성을 낮추었다.

끝으로 α 가 ‘물리적 특성’으로 나타났지만 주요 외국어 화자의 평균적 α 유추 가능성이 낮다고 나타난 ‘두부멘탈(2013)’의 예시를 보자.



<그림 12> 은유를 통한 ‘두부멘탈’의 문화 맥락 의미(α) 형성

‘두부멘탈’의 의미 함수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물렁하고 나약한(α)’은 한국어에서 문화특수적으로 연상되는 의미로 판단하였다. 1단계에서는 ‘두부처럼 --- 멘탈’만 제시했을 때 빈칸을 채울 환경 원소로 ‘부서지는(2명)’, ‘유연한(2명)’, ‘부드러운(1명)’ 등 대체로 [+SOFT]의 자질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의 음식 문화에 익숙하여 연상된 의미로, 2단계에서 주요 외국어 화자들이 이를 유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E99>, <F00>, <A92>, <R91>)는 의견이 높다(<C95>)는 의견보다 지배적으로 많았다.

전자는 본인의 언어문화권에서 ‘두부’의 주요 물리적 특성으로 ‘흰(white)’을 먼저 연상하여 α 가 ‘텅 비어 있는, 생각이 없는’ 등으로 유추될 확률이 높다고 본 경우(<F00>, <A92>), ‘두부’와 ‘멘탈’의 사상 자체가 부자연스러워 의미 유추가 어렵다고 답한 경우(<E99>), 한국식 두부보다 일본식 미소시루의 두부에 익숙하여 ‘물렁하다(soft)’의 반대말인 ‘단단한(hard)’을 연상해 반의관계의 α 가 유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경우(<R91>)였다. 반면 후자는 두부를 주요 요리 재료로 사용하는 문화권으로서 ‘두부’의 촉각적(물리적) 특성인 ‘물렁하고 나약한’이 예측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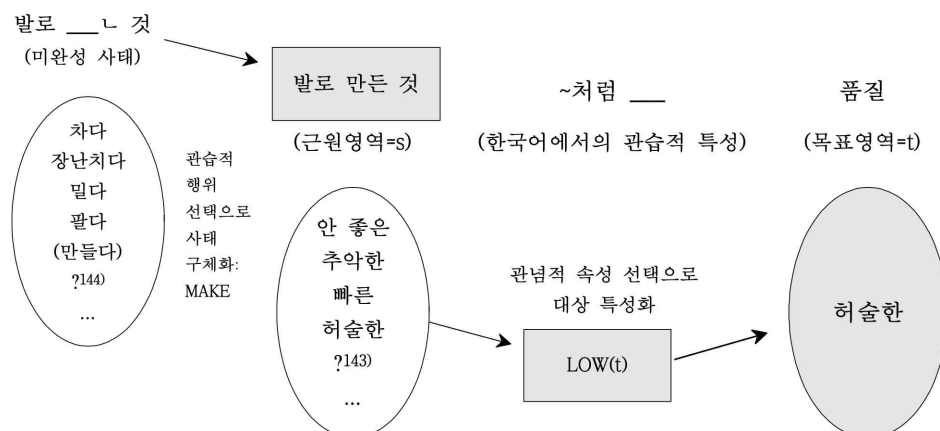
(<C95>)였다.

이를 통해 ‘두부처럼 $\alpha 1$ 멘탈’에서 물리적 특성 집합인 $\alpha 1 = \{\text{흰, 없는, 단단한, 유연한, 부드러운, 부서지는}\dots\}$ 에서 원소에 ‘단단한’과 ‘부드러운’ 같은 반의관계가 나타나거나, 언어문화권에서 근원영역(‘두부’)에서 연상되는 일차적 영상도식이 ‘흰’, ‘유연한’ 등으로 각기 상이하게 나타난다면 α 의 문화특수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²⁹

6.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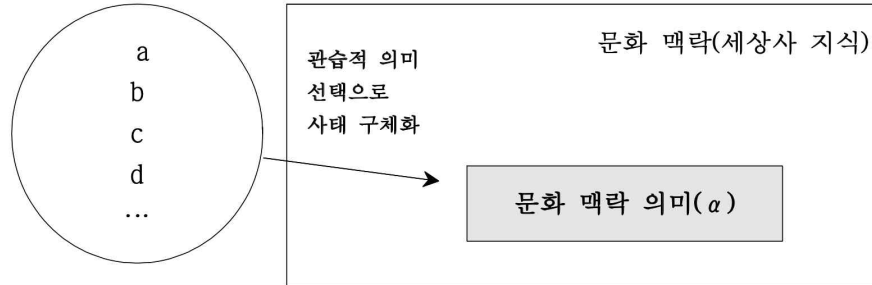
본고는 한국어 2010년대 고빈도로 사용된 신어 의미에서 언어내적 축자적 의미를 넘어 언어외적 문화 맥락 의미(α)의 범위 및 그 형성 양상과 존재론적 특성을 ‘환유를 통한 사태의 구체화’, ‘은유를 통한 대상의 특성화’라는 인지적 동기를 기반으로 해당 문화 맥락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따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1990~2000년대 출생한 주요 외국어(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아랍어, 러시아어) 화자 가운데 한국어를 고급 이상으로 구사하는 다섯 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α 의 유추 가능성을 질적 면담 실험을 통해 관찰하여 얻은 주요한 경향성은 다음과 같다.

²⁹ 본고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위해 환유나 은유 중 하나가 의미 함수에 주로 실현된 경우만을 보았다. 그러나 환유와 은유가 동시에 의미 함수에서 작동하는 경우도 ‘발켈(2014)’, ‘홍수저(2016)’, ‘헬린이(2019)’, ‘뱀짤이(2019)’ 등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발켈(2014)’을 도식화한 결과만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환유를 통한 사태의 구체화]

구성성분 의미 + + 구성성분 의미
(미완성 사태)



<그림 13> 환유를 통한 문화 맥락 의미(α) 형성

가. '문화보편적 환유'로 형성된 문화 맥락 의미(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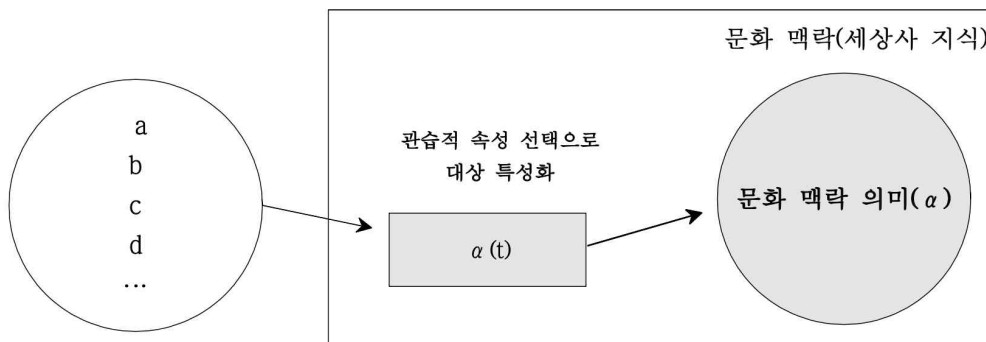
- 1) 주로 사건 그 자체인 행위 및 상태(activity or state)로 나타남
- 2) 구성성분이 특정한 사용역(register)을 가짐

나. '문화특수적 환유'로 형성된 문화 맥락 의미(α)

- 1) 주로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인 참여자(participant)나 환경(circumstance)으로 나타남
- 2) 다양한 경우의 수 가운데 반의관계의 의미자질들이 나타남
- 3) 환유로 이룬 사태의 상징 사체가 유효적이지 않거나 어색함
(단, [가]의 조건으로 나타나도 [나 1~3]이 적용되면 문화보편성이 낮아짐)

[은유를 통한 대상의 특성화]

구성성분 의미 + ~처럼 + 구성성분 의미
(근원영역=s) (한국어에서의 관습적 특성) (목표영역=t)



<그림 14> 은유를 통한 문화 맥락 의미(α) 형성

가. '문화보편적 은유'로 형성된 문화 맥락 의미(α)

- 1) 주로 신체적으로 감각하거나 직접 측정 가능한 물리적 특성(physical attributes)이나 경험적 특성

(empirical attributes)으로 나타남

- 2) 근원영역에서 연상되는 일차적 영상도식(image schema)이 문화권의 영향을 잘 받지 않음
- 3) 근원-목표영역 간 사상이 강력하여 환유적 요소로 나타날 확률이 낮음

나. '문화특수적 은유'로 형성된 문화 맥락 의미(α)

- 1) 주로 신체적으로 감각하거나 직접 측정 불가한 추상적 특성(abstract attributes)이나 관념적 특성(ideological attributes)으로 나타남
- 2) 근원영역에서 연상되는 일차적 영상도식이 문화권마다 상이함
- 3) 근원-목표영역 간 사상이 약하여 환유적 요소로 나타날 확률이 높음
- 4) 근원-목표영역 간에 반의관계의 의미자질이 사상됨

(단, [가]의 조건으로 나타나도 [나 1~3]이 적용되면 문화보편성이 낮아짐)

본고는 한국어 신어에서 발견되는 문화 맥락 의미(α) 논의를 확장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 문화 보편성과 특수성의 정도성(degree)을 보다 경험적으로 관찰하고자 소수의 외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질적 면담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논의가 계속되려면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언어문화권 화자를 대상으로 주요 변인을 통제한 계량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실험 과정에서 한국어 구성성분 번역에 따른 의미적 이질성을 최소화하려면 연구참여자 이외 이중언어자의 검수를 받아 논의의 신뢰성을 더욱 제고해야 한다. 그럴 때 본 연구에서 가능성 수준으로 제시한 문화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가 단어 의미 형성에 관여하는 실제 양상을 더욱 타당성 있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단어는 형성 시기의 사회 모습과 문화 맥락을 담는 '사진'과도 같다(정한데로 2020:87). 본 연구는 한국어 어휘론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언어외적 맥락과 세상사 지식이 의미를 형성하는 양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가시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문화 맥락 의미(α)는 그 자체로는 화용론적 의미에 가깝지만 형성 과정에서는 의미론적 합성에 기여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더불어 문화 특수적 α 는 한국어 문화권 화자의 관습적 사태와 특성을 유효적으로 보이는 단위라는 점에서 사회언어학적 가치도 충분하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 맥락 의미가 한국어 단어에서 형성되고 정착하는 양상을 더욱 입체적으로 관찰하는 논의가 확장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참고문헌

- 김진해(2014), 은유적 합성명사의 결합관계와 인지언어학적 해석, <국어학> 70, 29-57.
- 남길임 · 송현주 · 최준(2015), 현대 한국어 [+사람] 신어의 사회문화적 의미: 2012, 2013년 신어를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25, 39-67.
- 박재연(2021), 한국어 명사의 속성적 용법과 활성화 성분 현상, <국어학> 99, 137-173.
- 양정석(2013), 개념의미론과 합성성, <한국어 의미학> 40, 1-41.
- 윤평현(2020), <새로 펴낸 국어의미론>, 역락.
- 이진성(2017), 신어에 반영된 사회문화상과 변화의 양상, <사회언어학> 26-1, 127-158.
- 이찬영(2022), 한국어 합성명사 해석에 대한 실험적 연구, <2022년 세계 한국어학자 대회(ICWKL) 발표논문집>, 556-587.
- 정예은(2022), 한국어 신어의 문화 맥락 의미 형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한데로(2014), 단어 형성과 의미 합성성: 통합관계와 계열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44, 263-289.
- 정한데로(2020), 신어로 바라본 한국의 대중문화 - 1994년, 2004년, 2014년 신어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 연구> 53, 85-120.
- 조태린(2005), 사회언어학의 기원에 대한 소고, <사회언어학> 13-2, 235-256.
- Frege, G. (1892). Über sinn und bedeutung, (On sense and referenc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und philosophische Kritik, 100, 25-50.
- Gibbs, R. (1999). Speaking and thinking with metonymy. Metonymy in Language and Thought, 4, 61-76.
- Halliday, M. A. K., & Matthiessen, C. (2014).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4th edition). Routledge.
- Kearns, K. (2011). Semantics, Palgrave Macmillan.
- Kövecses, Z. (2002).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Kövecses, Z. (2005). Metaphor in Culture: Universality and Vari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Kövecses, Z. (2015). *Where Metaphors Come From: Reconsidering Context in Metaphor*. Oxford University Press.

Murphy, M. (2010). *Lexical Mea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